

균형을 위한 도시기능의 다핵화

On the multi-purpose of City function for Equivalence

박 양 호*
Y. H Park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에 전국 인구의 25% 이상이 모여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정보, 교육기능 등이 몰려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순위 1위인 도시의 비율이 일본은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5.5%, 미국은 2.9%, 이탈리아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도시가 균형 있게 발달해 국토상의 도시배치가 다핵화 상태로 되어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 다핵화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그들의 치밀한 도시계획과 노력, 중장기적 안목의 산물인 도시 다핵화는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철저한 기능 분할을 통한 전략적 중심지 개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D.C인 반면에 경제의 중심지는 뉴욕이다. 각 도시가 특징을 가지며 경제·행정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면 93년도에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미국은 161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본사 입지를 보면 이중 12개 기업만이 뉴욕에 있고 시카고에 8개 기업, 로스앤젤레스에 6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워싱턴D.C에는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의 본사가 없다.

미국의 도시는 특정기능을 중심으로 발달돼 국토 전체로 보면 크고 작은 중심지가 널려 있다. 이들 지역들은 세계적인 활동을 위한 디자인센터로서, 개발실험실로서, 그리고 전략적인 중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독일에는 대도시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도시들이 각기 철저한 기능 분할을 하고 있다. 구서독의 경

우 본에는 내각이나 수상관저가 있지만 연방행정의 중추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쾰른, 뮌헨, 칼스루에 등의 도시에 수도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기능이 다극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이 분산이 조직상에 방해가 된다는가,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진 않는다. 수도기능이 분산되면 기능집중성의 가치가 없어지고 특히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수도기능이 분산돼 있어도 서독은 일본과 나란히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지방분권적 구조를 가진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 주체적인 지역계획을 도와서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국토의 다핵화 추진을 통해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

일본에서는 전후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

*국토개발원 연구위원

정에서 동경권, 나고야권, 오사카권으로 인구가 몰려왔다. 이들 지역외의 지방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4차 전국 종합개발 계획은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경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외에 지방의 중심 도시를 핵으로 하여 일본의 국토를 다핵화 시킨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라는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한반도와 중국대륙과 가까운 규수 지역의 후코오카시는 지방도시 중에서 커다란 핵을 이룩하는 시범도시가 되고 있다. 후쿠오카 시가지에 중앙정부기관, 대기업의 본사·지사, 금융, 보험, 서비스업이 집중하고 최근에는 컨벤션과 정보관련 산업 등도 급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21세기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사이드 모모치」개발 사업이다. 후코오카시에서 89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국제 박람회 장소가 된 「사사이드 모모치」에는 국제화, 정보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다양화 등 신시대의 수요에 대응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복합 신시가지 개발하는 이 사업지구의 규모는 총면적 138ha이며 1.4km의 인공해변이 건설된다.

일본은 21세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도심부, 서부지구, 동부지구의 3지구로 나누어 각각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분담해 개발하고 있다. 사진은 다양한 문화교류로 일본 국토의 중핵을 이룩하려는 「사사이드 모모치」개발사업

지역간 불균형 개발문제를 다핵화로 푼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 인구 및 산업이 상대적으로

로 집중돼 파리와 파리의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 문제가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50년대부터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및 인구의 지방분산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수도권 파리에 몰려있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방도시로 분산배치하기 위해 지방에 입지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재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동시에 파리 수도권에 대한 엄격한 입지규제를 실시하였다. 파리대학의 기능, 예술지성기능, 본사업무기능의 지방분산시책 및 파리 수도권 내 공장, 사무실 입지에 대한 허가제 및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동시에 파리 수도권 내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파리의 기능을 이전 배치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부터 파리 수도권의 인구분담율이 19% 수준을 내외로 하여 거의 고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낙후지역의 산업구조가 서서히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지방의 핵중의 하나는 남부의 「소피아 앙티 폴리스」이다. 프랑스에선 수도 파리 다음으로는 큰 규모의 국제 공항을 갖고 있는 니스로부터 15분 정도의 거리에 소피아 앙티 폴리스로 불리는 프랑스 최대의 과학단지가 위치해 있다. 현재 이곳에는 프랑스 국립과학기술연구소를 비롯한 각분야의 국공립연구소, 대학연구소는 물론 프랑스 항공총본부, IBM다우케미칼, 다지탈사 등이 집중돼 있다. 2001년까지는 1500여 개의 첨단 기술 산업체가 입지할 예정이다.

외국 선진국에서의 국토의 다핵화 사례는 우리에게 국토의 선진화를 추진하게 만든다. 즉 지방 도시를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가 도시간에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담돼야 한다는 것이다.